

자살유족의 소비자참여를 통한 집단 서비스 개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of Batch-Service by Participation of People Bereaved by Suicide

-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중심으로 -

이구상¹, 박재영¹, 조연정¹, 진희정¹, 김수현¹, 이연화¹, 이명수²

G.S. Lee MSW, J.Y. Park MSW, Y.J. Cho MSW, H.J. Jin PRN, S.H. Kim MSW, Y.H. Lee MSW, M.S. Lee MD, MPH

초 록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살유족 당사자의 참여와 욕구를 토대로 자살유족 집단 서비스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FGI(Focus Group Interview)로 진행하였으며, 2014년 9월 26일 14시부터 18시까지 총 4시간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자살유족 7명과 진행 및 참관, 기록을 위한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종사자가 7명이었다. 인터뷰 형식은 반개방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진행자가 준비한 기본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필요한 질문을 추가로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 **연구결과** : 자살유족의 심리적 고통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살유족간의 자조모임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심리정서 상태 및 유족의 욕구에 따라 모임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자살유족 자조모임에서 벗어나 개인의 특성에 따른 소모임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며, 기존의 모임과는 다르게 고인과의 관계, 정서상태, 사별시기 등과 같이 유족의 특성에 따른 모임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 또한 회복된 자살유족을 중심으로 타 유족의 심리정서 회복을 돕는 '봉사' 라는 의미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 **결 론** : 자살유족모임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인 의견교환이 필요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살유족의 심리정서 회복을 위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요용어** : FGI(Focus Group Interview), 자살유족, 자조모임, 소비자참여

Abstract

- **Objective** : This study is a basic data to actively investigate the direction of batch-service for the people bereaved by suicide based on their participation and desire.
- **Method** : This study had been carried out with 4 hour FGI(Focus Group Interview) from 14:00 to 18:00 on September 26th, 2014. There were 14 people in the interview: 7 people bereaved by suicide, and 7 people from the Seoul Suicide Prevention Center for progress, observation, and recording. It was a semi-open interview; the host asked the participants the basic questions already prepared, but also added other questions in case of need.
- **Result** : People bereaved by suicide suffer terribly; therefore, the self-help group program is very important and significant for them to deal with their psychological distress.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types of group by their emotional and psychological condition and desire. This study agrees to end the self-help group for people bereaved by suicide and create the various small groups by individual peculiarities. It also suggests to establish the various meetings for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bereaved such as relationship with suicide, emotional condition, and time of loss instead of the existing ones. The necessity of 'voluntary service' by the recovered bereaved also comes forward to help the recovery of the unrecovered bereaved.

1_ 서울시자살예방센터

2_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